

김서정의
절집나무이야기

⑲ 경기도 고양시 흥국사 반송

땅과 하늘과 사람 영역 하나로 묶어낸 반송

'도심 속 명산' 은 연간 800만 명이 다녀간다는 북한산을 빛내주는 수식어다. 서울시 다섯 개 구와 경기도 세 개 시를 아우르고 있는 북한산 정상 백운대는 836m로 고양시 땅이고, 노고산 정상은 487m로 양주시에 속한다. 이처럼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좀 어지러운데, 인간의 구획이 있기 전인 중생대 쥐라기 그러니까 약 1억 6000만년 전 거대한 화강암체로 시작되어 오늘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숲이 인간의 영역에 갇힌 꼴은 아닐까?

그래서 언젠가 수정되어야 할 문구라고 여기며 효자계곡에서 발원한 물이 수풀 사이를 흐르는 창릉천 다리를 건너 흥국사로 향한다. 가을볕인지 여름볕인지 따갑고도 뜨거운 기운에 축 처지기만 하는데, 창 넓은 모자를 쓰고 밭을 돌보는 이를 보니 절 답사 가는 길이 축복 같아 서둘러 일주문 앞에 선다.

'興國士(흥국사).' 명쾌하다. 땅 위에 하늘 아래 흥국사만 있는 것 같다. 지리 확인은 군더더기 수식어다. 오로지 흥국사만 기억하면 만사형통인 것 같다. 실제로 흥국사만 번창하면 나라도 전 세계도 번창한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흥국사 역사가 그걸 입증하고 있다.

국태민안의 사찰인 흥국사는 신라의 고승 원효대사가 661년에 창건한 천년 고찰이다. 당시 이름은 흥성암(興聖庵)이었다는데, 날로 피폐해지는 백성들의 삶을 걱정하며 북한산 원효암에서 정진 수도하던 원효대사는 어느 날 맞은편 노고산(혹은 한미산)에서 상서로운 빛이 솟는 걸 보고 가니 석조 약사여래 부처님이 계셨단다. 그래서 앞으로 중생을 제도할 수많은 성인들이 배출될 것이라 생각하고는 흥성암이라 하였는데, 조선 영조 때 흥국사로 바뀌었다고 한다.

영조는 파주에 있는 자신의 생모 숙빈 최씨의 묘소인 소령원에 행차를 갔다가 눈이 너무 많이 와 흥성암에 하루를 묵게 되었단다. 다음 날 아침 경내에 가득 쌓인 눈을 보고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라는 시를 남기고는 흥국사라는 글씨를 써서 하사하였다고 한다. 이후 많은 이들이 나라가 어지러울 때마다 흥국사에서 기도를 하였다는데, 나라가 잘 되면 개인도 잘 되는 법, '흥국사' 단 한 줄로 흥국사는 설명이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일주문을 지나니 포장도로와 계단길이 나타난다. 그 사이에 만일 동안 염불을 했다는 만일회의 역사를 기록한 흥국사만일회를 잠시 보고는 느티나무를 먼저 보기 위해 야트막한 언덕길



세상 모든 걸 하나로 묶는 듯한 흥국사 반송.

여러 줄기로 자라는 게 특징
생김새 둥근 밥상 같아 '반송'

을 오른다. 넓은 평지가 나타날 즈음 기어들 듯 자라는 모습, 오랜만에 다시 봐도 여전히 처연하면서도 살려는 기운이 찌릿찌릿 전해져온다. 아니 사라지지 않고 버티고서 푸른 잎을 피워내고 열매까지 매달아주고 있어 눈물 나도록 감사하다.

2003년 경기도 보호수로 지정된 흥국사 느티나무는 지정 당시 450년 수령으로 추정한다는데, 높이는 15m, 나무둘레는 3.7m란다. 안내판을 보면, 노거수로 동공이 크게 만들어져 있어 외과수술을 했다고 하는데, 나무는 본래 물관과 체관이 있는 변재만 세포활동을 하고, 나머지 심재와 수피는 죽은 조직이다. 그래서 느티나무의 경우 버팀목을 세워 쓰러지지 않게만 하면 천년 이상을 살 수 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미타전으로 부르는 대방을 보고는 주불전인 약사전 앞마당에 가득한 국화꽃 향내를 맡으며 흥국사 전망대로 올라간다.

1988년 보호수로 지정되었다는 수령 250년 추정, 높이 12m, 나무둘레 3.3m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원효봉, 의상봉, 나한봉 등 북한산 능선을 조망하니 화강암보다 더 단단한 부처님 기운이 쏟아지는 것 같아 불끈 힘을 쥐고는 그 옆 명상쉼터 의자에 앉는다. 그때 의자 아래 앞 풀밭과 그 지평선 위 청기와 지붕 전각과 그 너머 봉긋 솟은 참나무 그리고 푸른 하늘 하얀 구름 아래 북한산 풍경을 하나로 아우르는 듯한 서너 그루의 반송들이 시리게 박혀온다.

소나무 변종 품종으로 보고 있는 반송이 한반도에 언제 등장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일반 소나무는 줄기 하나가 땅에서 올라와 하늘로 쭉 자라는데, 반송은 땅 바로 위에서부터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소반 반(盤), 소나무 송(松)을 쓰는 반송은 옆으로 번지듯 자라는 생김새가 작은 밥상인 둥근 소반 같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는데, 반송은 오래전부터 선비들에게 정원수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땅과 하늘과 사람의 영역이 하나로 합쳐지는 듯한 느낌을 반송을 통해 받고는 절을 떠날 때는 계단길로 간다. 해탈문 편액을 보고 둥근 원을 지나 불이문 편액을 되돌아본다. 불이가 먼저인가, 해탈이 먼저인가? 둥근 원 안에 모두가 하나인게 먼저인가? 북한산, 노고산, 고양시, 양주시, 서울시, 느티나무, 상수리나무, 반송, 이 구분은 인식으로 온당한가? 원에서 나는 무엇인가? 반송 하나로 묶여지는 숱한 풍경도 결국 마음 하나가 내는 것 아닌가? 어디선가 도토리 하나 툭 떨어진다.

〈작가 겸 숲해설가〉



승한 스님의
불교시 감상

⑱ 오세영의 '좌탈입망'

'웰 엔딩(Well Ending)'의 삶을 위하여…

좌탈입망(坐脫立亡)/ 오세영

어느 가을 저물녘,
여름내 허공을 맴돌던 한 마리 고추잠자리가
바지랑대 하나를 골라 정좌하더니
날개를 편 채
자는 듯 생을 마감하였다.

순간,

—반짝—

투명한 그의 모시 장삼을 물들인
서천서역(西天西域)의 황홀한 노을빛.

하늘도 벽이 있었나.

백척간두(百尺竿頭)에서
화두 하나 쥐고 입적한 그
노스님.

—오세영 시집, 〈갈필의 서〉, 서정시학, 2022—

앉을 '坐' (좌), 벗을 '脫' (탈), 설 '立' (입), 망할(죽을) '亡' (망). 좌탈입망(坐脫立亡). (승려들이) 앉거나 선 채로 죽는[입적(入寂)] 것을 말한다. (사람이 어떻게) 앉거나 서서 죽을 수 있을까. 출가 전에도 출가 후에도 필자는 늘 그 모습에 주눅이 들곤 했다. 출가해서는 그런 고승들을 목도하면서 더욱 주눅이 들었다. 얼마나 수행해야 저런 경지에 다다를 수 있을까. 얼마나 정진해야 그렇게 삶과 죽음을 자유자재할 수 있을까. 그런저런 상념은 항상 마음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오세영 시인의 이 시를 보고 우슬(右膝. 오른쪽 무릎)을 탁 쳤다. 머릿속으로 "—반짝—", 번개가 지나간 것이다.

오세영 시인은 어느 가을 날 저물녘에 뜨락(정원)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시인 자신처럼) 여름내 허공을 맴돌던 한 마리 고추잠자리가" "바지랑대 하나를 골라 정좌하더니" "날개를 편 채" "자는 듯 생을 마감하였다." 여기까지는 매우 평범하다. 어려서나 커서나 우리들은 이 같은 기억(추억) 한두 개씩은 다 갖고 있다. 어떤 독자라도 여기까지는 이렇게 그려낼(묘사) 수 있다. 진짜 시는 바로 '다음 행' (2연)부터 시작된다. 오 시인은 단 한 줄, "순간,"이라는 시행과 연(聯)으로 그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단 한 줄로 된 시행과 단 한 줄로 된 연의 공간 안으로 1연의 그 모든 과정을 함축하고 통일시켜버린 것이다.

다음 한 줄도 마찬가지다. "—반짝—"이라는 한 행과 한 연의 공간으로 1연에서 자신이 느끼고 체험한 것을 시로 승화(형상화)시켜 버린 것이다. 보라, "순간,"으로 포착된 2연의 공간과, "—반짝—"으로 표현된 3연의 공간 속에 다른 시행이 들어가 있다면 이 시는 얼마나 지루하고 멸렬한 설명의 설명이 될 것인가. 한 행 한 연으로 표출된 이 두 공간 속엔 천둥보다 더 큰 긴장과 우주보다 더 넓은 삼천대천세계(불교적 우주)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투명한 그의 모시 장삼"(죽은 고추잠자리의 날개)을 발견하고, "하늘"의 "벽"을 발견하고, 물러설 수 없는 "백척간두(百尺竿頭)에서/ 화두 하나 쥐고 입적한 그/ 노스님"을 발견해낸 것이다. 바지랑대 끝에서 죽은 '고추잠자리' 한 마리의 모습에서 화두 하나 쥐고 입적한 '노스님'을 본다는 것은, 오세영 시인 자신이 이미 그 '고추잠자리' 같은 삶-불교적 삶-을 살고 있음을 간접적(혹은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좌탈입망' 에는 두 가지 뜻이 들어 있다. 첫 번째는, 좌탈입 '망' (坐脫立 '亡')이다. 승려가 앉은 자세나 선 채로 입적(죽음)에 들어가는 것이다. 고승(高僧) 가운데는 앉아서 죽는 경우도 있지만, 서서 죽는 경우도 있다. 선가(禪家)의 전설로 내려오는 삼조(三祖) 승찬 대사는 뜰을 거닐다 나뭇가지를 잡고 열반했다고 한다.

두 번째 뜻은, 좌탈입 '망' (坐脫入 '忘')이다. 앉은 자세로 '옷' (육신)을 벗고 우주로 들어가는 것이다.

선가(禪家)에서 좌탈을 중시하는 이유는 마지막 죽는 순간의 의식 상태가 다음 생[환생(還生)]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불교적 우주관에서 보면 죽음은 다음 생을 시작하기 위한 마지막 장면이다. 때문에 '앉아서 죽었다' (좌탈)는 것은 죽는 순간에도 의식을 놓지 않고 각성(覺醒)한 상태에서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다음 생에 태어날 때 바로 그 상태의 의식수준과 육체적 조건을 갖추고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죽음이니 숭고할 수밖에 없고, 그런 죽음은 다시 '다비' 라는 숭고한 의식으로 사람(중생)들의 허기를 채워준다. 오세영 시인은 그 장면도 놓치지 않았다.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 속에/ 깃을 치는 한 마리 새가 있다./ 푸드득 거리는 그/ 날갯짓 소리./ 툭툭/ 먹이를 쪼아대는 입질./ 타다닥 타다닥/ 부리에 잡혀 사방으로 흩어져 튀는 불똥./ 밤새 수런거리던 그 한 마리 새가/ 이 아침,/ 잿더미만 남긴 채 그만/ 종적이 없이 사라져버렸다. 〈후략〉"

—오세영 시집 《갈필의 서》 중 〈다비茶毘〉 일부

다비 장면을 실감나게 잘 그렸다. 지난 2020년 8월, 필자도 선암사에서 다비 장면을 입망(立忘)으로 직접, 아주 실감나게, 가까이서, 지켜보았다. 17, 18, 19세 태고종 종정을 역임한 혜초 대종사의 다비식이었다. 다음날 아침 사리를 수습할 때 보니 혜초 종정의 옷(육신)은 장작더미 속에서 종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때 필자는 생각했다. 그래, 죽으려면 이렇게 죽어야지, 이렇게 깨끗하고 종적도 남기지 않고 죽어야지, 이게 바로 '웰 다잉' (Well Dying)이고, '웰 엔딩' (Well Ending)이지. 참, 이 시에서 알아두어야 할 대목이 있다. 2연의 "그래서 서역(西域)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시신(屍身)을 굳이 땅에 묻지 않고/ 독수리의 먹이로 삼는다 하지 않던가."는 조로아스터교나 라마교에서 행하는 조장(鳥葬)이나 천장(天葬) 풍습을 말한다. 재미있는 것은 오세영 시인의 시선은 이 같은 현세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오 시인은 같은 시집에서 '윤회(輪廻)' 라는 시를 통해 다음 생도 (즐겁고 기쁘고 코믹하게) 일러주고 있다.

"돌고 돌아 돈이라던가// 그제 한 채의 오피스텔이었던 돈이 어제는/ 카지노의 칩,/ 오늘은 또 귀부인의/ 손가락에 낀 다이아 반지가 되었다./ 〈후략〉" **—오세영 시집 〈갈필의 서〉 중 '윤회(輪廻)' 일부**

시는, 불교는, 종교는 이처럼 즐겁고 기뻐야 한다(때로는 익살맞을 줄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진짜 종교고 불교고 시다. 시와 불교와 종교를 가지고 놀 줄 아는 오세영 시인에게 경의를 표한다.

〈불교문학연구소장〉

www.holytec.com

오리지널 유골 보석

영옥(靈玉)

· 납골의 변질과 혐오감이 없습니다.
· 깨끗한 모습으로 영구적입니다.

20년을 유골성형 한 길로 고인 고유의 색상을 발현시켰습니다.
▣ 1기 생성 소요시간 60~90분 소요 ▣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 검색
상담 : 010-5235-2677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